

## 韓國的 Geomentality에 대하여\*

尹 弘 基\*\*

《차 례》

1. 머릿말	4. 세계관, 환경지각, Mentalmap 그리고 Geomentality
2. Geomentality의 개념정의	5. 한국인의 Geomentality
3. Geomentality의 전제조건	6. 마침말

### 1. 머릿말

우리가 한 천평의 빈터(空地)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땅을 불란서 정원사와 우리나라 동산 바치(정원사)에게 주고 각각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라고 한다면, 아마도 불란서 정원사는 베르사이유 궁전 정원식의 기하학적인 직선과 원형으로 구성된 정원을 만들고 우리나라 옛 동산 바치는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비원(秘苑)식의 정원을 만들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같은 땅 같은 조건에서 두개의 대조되는 정원 경관이 형성되는 것은 두 정원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정원이 각기 다른 때문이다. 즉, 불란서식의 정원은 서양의 「인간의 자연 지배사상」과 자연은 다듬어져 인공화 될때 아름답다는 서양 사람의 생각의 표현이고, 비원식의 한국 정원은 동양의 「인간과 자연과의 일치사상」 및 인공을 가하지 않은 자연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동양인의 생각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위에 기술한 동서양의 자연관은 상식화된 견해임).

두개의 대조되는 동서양의 정원은 두개의 대조적인 동서양의 자연관, 즉 「땅에 대한 멘탈리티」의 일면에서 연유된다 할 수 있다.

이 작은 논문은 geomentality,<sup>1)</sup> 즉 「땅에 대한 멘탈리티」의 개념 설명과 한국적인 geomentality의 형성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Geomentality란 개념은 단적으로 말해 「땅을 보는 마음 됨됨이」, 「땅에 대한 정신상태」, 「지리적 인식상태」 또는 「지리적 정신구조」라고 잠정적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 번역들은 geomentality란 영어개념에 딱 들어맞는 말인지 아직 확신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냥 geomentality 또는 「땅에 대한 멘탈리티」라고 하겠다. 우선 geomentality란 말이 생소한 말이므로 이 개념 자체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 본 小論文은 1987年 9月부터 같은해 12月간에 필자가 한국의 몇몇 대학에서 강연한 것의 일부를 정리 발간시킨 것이다. 필자의 강연을 주선해 주셨거나 강연에서 토의에 참가하여 많은 질문과 comment를 하여 본인을 격려해준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및 연세대학교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 Senior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Auckland, New Zealand

1) Geomentality란 말은 필자가 1983년도 이후 뉴질랜드와 불란서에서 있었던 세미나식 연설에서 또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대학교에서 해온 문화지리학 관계 강의에서 사용하여 왔다. 1986년에 출판된 본인의 저서 *Maori Mind, Maori Land*(마오리의 마음, 마오리의 고향땅)에서 geomentality의 개념이 아직 예비토론이긴 하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어 졌다.

## 2. Geomentality의 개념 정의

Geomentality는 geo, 즉 「땅」을 의미하는 말과 mentality, 즉 「정신상태」를 의미하는 말의 합성어로서, “an established manner(mentality) or taken-for-granted way of cognising the environment which conditions humanity-nature relationships: namely the mentality regarding geographical environment which is held by a group of people or an individual”이라고 정의 했다.<sup>2)</sup> 다시 말하면 geomentality는 땅, 즉 지리적 환경을 대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기성화 됐고, 지속성이 있는 정신상태(인식상태)로서 인간과 자연 관계를 제약하는 환경인식상태이다. 이는 마치 연극에 있어서 연극각본과 연극 공연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하겠다. 무대 장치와 배우들이 행하는 연극공연 그 자체를 우리가 육안으로 볼수 있는 문화지리 현상에 비한다면 연극각본과 연출자의 의도는 geomentality에 비길수 있다고 생각한다.

## 3. Geomentality의 전제조건

문화지리 현상의 설명에 있어서 지오멘탈리티 개념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하에서 가능하다.

1) geomentality는 인간의 mentality(정신상태)의 한부분이다. 인간의 멘탈리티에는 여러 측면이 있는바 이를테면 정치적인 측면(political mentality)이 그 한예일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멘탈리티 중에서 땅에 대한 측면을 일컬어 geomentality라고 하는 것이다.

2) 어떤 특정한 인간행태 유형(behavioural

pattern)은 인간의 어떤 특정한 mentality로부터 유래된다. 사람들에게는 행태유형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행동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 이 예외적인 행동은 mentality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런 예외적인 행동은 그 행동을 한 사람의 mentality로서는 설명이 안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단편적인 행동이 행태유형에서 벗어날 수 있듯이 사람의 단편적인 idea들도 일정한 mentality에서 예외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sup>3)</sup>

그러나 개인이나 문화집단은 일정한 행태유형을 보유하고 있다. 그행태 유형은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mentality에서 연유된 것이다. 이와 같이 특정 문화지리 현상 유형뒤에는 특정 geomentality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geomentality를 식별해 내는 것은 문화지리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과제라고 생각된다.

## 4. 세계관, 환경지각, Mental Map 그리고 Geomentality

우리 지리학자들이 지리현상 설명에 써오던 개념으로 세계관, 환경지각 또는 mental map등이 있는데 이 개념들을 비교하면서 지오멘탈리티를 설명해 보기로 한다.

### (1) 세계관

이말은 독일어의 Weltanschauung이 번역 정착된 개념으로서 즉흥적인 생각이 아닌 이미 기성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는 보다 지속성이 있는, 세상에 대한 견해다. 이 세계관은 지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먼 “세상”적인 면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生死觀, 宗教觀, 歷史觀, 人生觀 등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지리적

2) Yoon, H., 1986, *Maori Mind, Maori Land*, Peter Lang, Berne, p.39.

3) 예를 들어 우리가 한 채식주의자가 식당에서 음식을 잘못 분별하여 고기를 좀 먹는 것을 보았다고 하자. 이 행동은 그의 정상적인 행태 유형(behavioural pattern)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이예외적인 행동(실수)으로 인하여 그가 채식주의자가 아닌 것도 아니며, 우리는 그가 육식을 피하고 채식주의를 하는 채식주의자가 그의 정상적인 행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는 그가 채식주의를 하는 이유 즉 그의 독특한 채식주의의 멘탈리티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그의 채식주의의 멘탈리티를 알아냄으로써 그의 채식주의의 행태를 보다더 근본적으로 조직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하지만, 그의 예외적인 행동(고기먹은 실수) 설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경이나 지리적 공간에 대한 觀만이 아닌 총괄적인 세상관들이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역사문화지리현상 설명을 위한 개념으로 쓰기에는 적합치 않다.

### (2) 환경지각

이말은 영어의 environmental perception의 번역으로 지리학도들이 근래 잘쓴 개념이기 때문에 더 설명이 필요치 않겠다. 지리학에서는 environmental perception이란 개념이 심리학에서 쓰는 환경지각 보다는 훨씬 광범위한 개념으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environmental perception, environmental cognition, environmental knowing, environmental attitudes 등을 다 포함한다.

이 환경지각은 인간의 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기성화된 견해(또는 觀) 뿐만이 아니라 즉흥적인 것(별로 지속성도 없고 의도하는 뜻도 결여된 환경에 대한 견해(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런 즉흥적인 견해는 실제행태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environmental perception을 규명했다고 해서 그들의 environmental perception이 반드시 그들의 실제 행태의 유형에 반영되리라는 보장이 없게 된다. 왜냐하면 즉흥적인 측면의 환경지각은 그 사람들의 실제 행태와는 자주 무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environmental perception은 실제 환경행태(environmental behaviour)에 잘 반영안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환경지각을 통해 인간행태를 설명 또는 예측하려고 하는 경우 많은 차질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이점이 바로 행태지리학(behavioural geography)이 비판 받는 이유중의 하나인 것 같다. 그러나 geomentality는 다르다. geomentality는 한 문화경관의 유형에 틀림없이 나타나 있다.

### (3) Mental Map

이것은 Peter Gould에 의해 시작된 이래 지리학에서 한때 각광을 받은 approach로서 주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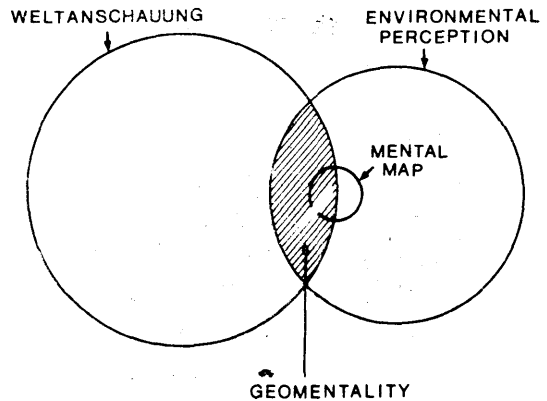
람들의 거주지 선호도를 측정해 지도에 나타내 보는 것이다.<sup>4)</sup> 다시 말해 mental map approach는 주로 거주지 선호(즉흥적인 반응도 포함될 수 있음)와 지도에 제한된 것이다.

지오멘탈리티(geomentality)는 지리학에서 쓰여지고 있는 上記 approach들의 약점과 제한성을 좀더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창되었다

### (4) Geomentality

지오멘탈리티는 지리적 환경에 대한 이미 기록된 정신 상태로서 문화지리 현상이 형성되는데 근본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An established set of mind <mentality> regarding environment). 이 멘탈리티는 인간의 실제 행동유형(behavioral pattern)에 꼭 나타나 있다.<sup>5)</sup> 그래서 문화지리현상의 유형은 geomentality로서 보다 더 근본적으로 설명 될수 있다. 적어도 재래적인 문화지리 현상 설명에 한 차원을 더할 수 있다.

Geomentality는 문화지리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기개념들에 비해 다음과 같은 이 점이 있다 할수 있다. Geomentality는 mental map처럼 거주지 선호도와 지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Geomentality는 세계관의 광범위한 대상에서 지리적인 (땅과 관계 되는) 현상만을 다룬다 또한 환경지각에서의 즉흥적인 측면을 제외시킴으로서 체계적이고 지속성이 있는 환경지각의



4) Gould, Peter R., 1966, *On Mental Maps*, Michigan Inter-University Community of Mathematical Geographers, Discussion Paper 9. Reprinted in English, P.W. and Mayfield, R.C. (eds.), *Man, Space, and Environment*, pp. 260~282.

5) Yoon, H., 1986, *op. cit.*, p. 45.

부분만이 geomentality에 포함된다. 따라서 세계관과 환경지각의 개념이 중첩되는 영역을 앞의 도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geomentality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Geomentality는 시대조류에 따라 변할수 있으며 쉽게 변하지는 않으며, 우리가 한사람의 정신상태를 그 사람의 걸음으로 나타난 행동의 유형에서 유출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그 사람이 어떤 식의 행동을 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듯이 특정한 geomentality는 반드시 특정한 문화행태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고 어느 문화행태의 유형에는 一定한 geomentality가 그 밑바탕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geomentality는 비교문화(cross-cultural) 지리현상의 설명에 특히 유용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문화지리 현상의 유형을 근본적으로 설명할때는 그 pattern의 근저에 있는 geomentality를 찾는 것이 그문제 해설의 key point를 잡는 것이 되겠다. 이것은 행동의 결과를 보고 그 근본 동기를 추적하는 것으로서 주어진 문화지리현상의 관찰 및 분석을 통해 그 지리현상을 이룩한 사람들(문화들)의 geomentality를 추적해 내는 것이다.

## 5. 한국인의 Geomentality

어느 민족이나 문화가 갖는 geomentality의 중요한 형성요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많은 경우 종교적인 신념들, 그 지역의 자연환경, 단편적으로 산재하는 환경사상 및 생활방식등을 들수 있다.

예를들어 전통적인 서양 사람들의 geomentality 형성에는 특히 성경에 나타난 환경사상이 중요하다. 창세기에 의하면, 하느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고 인간에게 세상 만물을 지배하도록 축복했다. 인간의 자연 지배 및 자연개조의 서양 mentality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1:27과 시편 5:5-8을 참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폴리네시아의 일부인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geomentality 형성에는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나무를 그들의 만아들로 하는 등의 자연가족적 마오리 창조신화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몫을 하였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재래 geomentality 형성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중요한 작용을 해왔는가를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의 신화중 대표적인 단군신화가 우리나라 geomentality에 미친 영향은 거의 중요치 않은 것 같다. 중요한 인자로는 불교, 유교, 그리고유민간무속 및 풍수지리설 등이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풍수지리설의 영향이 가장 크게 우리 민족의 재래 geomentality 형성에 작용한 것 같다. 그러면 풍수지리의 영향을 고찰해 보기로 하자.

풍수지리설이란 인간이 길지(吉地)를 찾아내서 그곳에 알맞는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땅(경관)을 평가하는 동양 재래의 술수이다.

한국인의 땅에 대한 인식구조(geomentality) 저변에는 풍수지리설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재래마을의 위치, 시골집과 대문의 좌향등을 봐도 분명하며 재래 도시의 위치 및 계획, 능묘의 위치 및 형태에도 잘 나타나 있다

풍수의 기본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길지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 쌓여 바람이 자고 앞은 열려 있으며 물이 그 吉地 전면에 있으나 그 지점 자체는 마른 곳으로 양지바른(햇빛이 잘드는) 곳이다. 이런 길지에는 거의 틀림 없이 우리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경관이 들어차 있다. 이런 풍수설의 원리와 한국문화경관에 대한 것은 대체로 잘 저술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론하지 않겠다.<sup>6)</sup> 오직 우리 조상의 geomentality가 얼마나 많이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산송(山訟)을 잠깐 설명 하겠다.

우리조상들은 어떤 곳은 吉地고 어떤 곳은 나쁜땅이라고 믿어서 명당(明堂)을 찾기에 혈안이 되었고, 집터나 묘터로 쓸 명당을 차지하는데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기가 일쑤 였다. 이러한 한국인의 명당에 대한 집념은 자주 법정투쟁의

6) 근래에 출판된 한국풍수사상의 연구단행본으로는 Yoon, H., 1976, *Geomantic Relationships Between Culture and Nature in Korea*, The Orient Cultural Service, Taipei. 최창조, 1984,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서울 등을 들수 있다.

비화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조선조 후기의 학자 정약용은 이러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개탄했다.<sup>7)</sup>

「墓地에 관한 訟事는 이제 弊俗이 되었다. 싸우고 구타하는 살상사건이 절반이나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며 남의 분묘를 파내는 變을 스스로 효도하는 일이라 생각하니 송사의 판결을 분명하게 하지 않을수 없다.」

이러한 우리민족이 명당을 지키거나 차지하려고 하는데서 빚어진 갈등은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古文書에도 잘보존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규장각에 보존되어 있는 古文書의 10% (4,700건)가 所志類(숫장: 진정서, 청원서, 訟狀)인데, 이 소송장들의 태반이 山訟文書라고 한다.<sup>8)</sup> 「싸우고 구타하는 살상사건의 반이 산송(명당)때문」이라는 정약용의 개탄은 현존하는 古文書로서도 충분히 증명되는 셈이다. 우리민족의 「땅을보는 마음됨됨이」는 명당을 찾는 풍수지리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19세기의 불란서 선교사 Dallet 신부는 당시 한국인들이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피비린내 나는 혈투까지도 했다는 것을 기록했으며, 한 평민이 결사적으로 명당을 지키려는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sup>9)</sup>

「평민들은 자기들의 묘를 보호하기에 온갖힘을 다한다. 한때 어느 고을 아전이 가난한 평민의 터에 강제로 자기 친척의 묘를 썼다. 그 평민은 자기의 저항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조용히 매장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매장꾼들에게 술을 한잔씩 권하고는 자기 장단지의 살을 베어 술안주를 하라고 했다. 끝원님은 이 이야기와 평민들의 불평을 듣고서는 그 아전을 호되게 벌을 주었다. 그리고는 그 묘를 파내게 해서 원래주인에게 돌려주게 했다.」

이와 같이, 명당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이는 필사적으로 남의 침범을 방어하려고 하고 명당

을 아직 갖지 못한 이는 기회만 있으면 명당을 차지 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명당에 위치한 묘에는 수많은 암장, 투장들이 있었다. 이는 모두 명당을 차지해서 발복을 받겠다는 재래 한국인의 geomentality의 표현인 것이다.

이러한 풍수지리설에 기저를 둔 재래 한국인의 geomentality는 근래에 와서 현대적인 한국인의 geomentality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최근(특히 1960대 초반 이후) 급격히 변화해오고 있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 경관에 잘 나타나 있다. 도시경관이 구미선진국의 현대 도시 경관처럼 되어감에 따라 재래한옥과 골목길의 경관이 사라져가고, 양옥, 마천루 및 넓고 곧은 길이 그 자리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 어디를 가나 편리성, 경제성 위주의 건물 및 시가지가 조성되면서 각지의 지역적인 특성이 소멸되고 획일화되어 가고 있다.

시골 경관에서도 초가 지붕은 사라지고 어색하지만 경제적이고 편리위주인 시멘트기와나 양철지붕으로 바뀌었으며 논두렁이 묘불 묘불했던 크고 작은 논밭들은 일정 면적의 바둑판식 직선 논두렁의 경지로 바뀌었다.

가장 보수적인 무덤(분묘) 경관에서도, 단독 묘지는 공동 묘지 또는 보다 더 서구적인 공원묘지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예를 볼때 한국인의 재래 geomentality는 급격히 현대 한국인의 geomentality로 대체되어 감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문화 경관은 특히 1960年代 초반 후 급격히 변하고 있고, 이 변화는 우리나라 geomentality가 음양 오행 풍수지리설에 기저를 둔 것으로부터 자본주의(이윤추구주의), 기능주의, 구미 지향주의에 기저를 둔 현대 geomentality로 바뀌어 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상 우리나라 문화지리 현상의 조성에 있어서 무덤(분묘)을 제외한 풍수지리설의 중요성은

7) 丁若鏞, 1984, 譯註 牧民心書 IV (茶山研究會譯註), 創作과 批評社, 서울 p.278. 정약용은 또 鄭瑄의 말을 인용해 사람들의 풍수로 연유된 지리적 행태를 개탄하길 「또 밭자리를 다투느라 송사를 벌여 아버이 시신이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집안이 이미 쑥 발이 되는 일이있고, 형제간에 각기 禍福이 다르다는 풍수의 말에 빠져 심지어는 骨肉이 서로 원수가 되는 일이 있다」고 했다(丁若鏞, 전제서, p.282).

8) 崔承熙, 1982, 韓國古文書研究,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서울, p.20.

9) Dallet Ch., 1874,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Libraire Victor Palmé, éditeur Paris, "Introduction," p.142 본 논문에 인용된 이야기는 Dallet의 기술을 요약 정역한 것임.

극히 무력해 지고 있고, 무덤 경관에 있어서도 풍수지리설의 힘은 급속히 위축되어 가고 있다.

## 6. 마 칙 말

geomentality는 땅에 대한 멘탈리티 즉 「땅을 보는 마음 됨됨이」, 「땅에 대한 정신 상태」, 「땅에 대한 인식구조」 등으로 번역될 수 있으나 아주 적합한 말인지 확신이 가지 않아 그냥 지오

멘탈리티(geomentality)라고 했다. 이 개념은 문화지리 현상을 비교 설명하는데 있어 특히 유용할 수 있다.

한국인의 재래 geomentality 형성에는 풍수지리설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 재래 한국인의 geomentality는 자본주의, 기능주의, 서구지향주의에 기초를 둔 현대 한국인의 geomentality로 대체 되어가고 있다.

# The Korean Geomentality

**Summary:**

**Hong-key Yoon\***

Geomentality may be defined as an established manner (mentality) or taken-for-granted way of cognising the environment which conditions the relationships between humanity and nature. It is the mentality, held by a group of people or an individual, regarding the geographical environment.

This concept of geomentality is based on the premises that (1) geomentality is a part of the mentality as a whole and (2) a pattern of human behaviour is the reflection of, and is controlled by, a certain mentality.

The concept of geomentality, which is lasting and established state of mind regarding land, has advantages over other concepts such as worldview, environmental perception and mental map in explaining cultural geographic phenomena. Geomentality is not limited to measuring

residential preferences which dominates the mental map approach; it does not include whimsical views or carelessly expressed views as in the environmental perception approach; it is not concerned with phenomena which are remotely related to geographical phenomena as in the worldview concept.

Geomancy (feng-shui) has certainly been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forming the Korean geomentality. Geomancy has greatly influenced the geographical behaviour of Koreans and the Korean cultural landscape.

The traditional Korean geomentality which is based on geomancy is being rapidly replaced by a modern one based on capitalism, functionalism and westernism (desire to be westernised).

---

Journal of Geography, Vol. 14, 1987.12, pp.185-191

\* Senior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Auckland, New Zealand